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며 성장하는 평신도

평신도 기도주간 : 5월 28일(월)~6월 2일(토)

5.28 월 하나되게 하소서(겔 37:16~23)

5.29 화 건강한 가정, 쓰임 받는 여선교회(룻 1:1~4)

5.30 수 사명을 감당하는 남선교회(마 6:25~34)

5.31 목 십자가의 길 가는 청장년선교회(눅 9:57~62)

6.1 금 영적 교육과 훈련에 적극 동참하는 평신도(시 1:1~6)

6.2 토 지역사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평신도(마 20:20~28)

제34회

평신도주일

2012.6.3

성수를 위한 자료집



주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주최 : 지방사회평신도부 총무

제34회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집

| 목차 |

I. 평신도주일을 맞아 _선철규 부장	4
II. 설교자료	5
동업자 예수 _김홍규 목사	
III. 예배자료 _김형래 목사	
1. 평신도 기도주간 묵상문	11
2. 예배문	24
IV.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행사자료	27
V. 생활 수칙	33
VI. 첨부자료	43

평신도주일은 1979년 3월 총회결의에 의하여 감리회본부에 평신도국을 두고 7개 연회 산하 166개 지방에는 평신도부를 두어 매년 5월 마지막 한 주간과 6월 첫째 주일을 온 교회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평신도가 예수 제자로서, 청지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안으로 는 개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사회구원의 밑알이 되어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게 하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웨슬리 개인의 경건과 절제를 통한 성화와 사회구원을 강조함으로써 매년 5월 24일을 전후로 지키는 웨슬리 회심주간과 6월 첫 주일에 지키는 평신도주일을 연계시켜 회심의 체험을 통하여 사회구원을 위한 헌신 봉사의 계기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주일은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결단을 새롭게 하는 계기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신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평신도의 생일입니다.

I. 평신도주일을 맞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며 성장하는 평신도”

선철규 부장
사회평신도국 총무 직무대리

평신도주일은 1979년 3월 총회 결의에 따라 당시 평신도국이 주관하여 매년 6월 첫째 주일과 그 한 주간을 평신도주일로 지키고 있으며, 올해로 서른네번째 평신도주일(6월 3일)을 맞이합니다.

2012년도 사회평신도국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며 성장하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서야 감리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살아날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한국 감리교회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받아 교회와 일터와 가정에서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주일 자료집〉에는 주간 성구와 기도문 그리고 예배문과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행사자료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평신도 주간인 5월 28일(월)~6월 2일(토)은 ‘평신도 기도주간’으로 지켜주시고, 6월 3일(주일)은 평신도들이 주관하는 ‘평신도 주일’예배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회봉사 사업에도 적극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리교회 절기로 이름만 남은 평신도주일이 아니라 지키는 평신도주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년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해 협력해 주시는 연회 감독님과 각 지방 감리사님들, 목사님들, 사회평신도부 총무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Ⅱ. 설교자료

동업자 예수

빌레몬서 1: 8~20

김흥규 목사
중부연회 인천서지방 내리교회 담임



국어사전에 보면 ‘동업자’(同業者)는 “사업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 풀이하여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동업자가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시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동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에는 예수님이라는 동업자를 잘 만나서 팔자 고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본래 빌레몬이라는 기독교인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물까지 몰래 훔쳐갔던 것 같습니다(18절). 당시 로마법으로 볼 때 오네시모는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오네시모는 잡혀서 감옥에 갇고, 거기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난 그는 바울의 동업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자신의 동업자로 삼자, 하루아침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바뀐 것입니다. 남의

물건이나 흠치던 아무 짝에도 쓸모없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법을 어긴 중죄인이 참된 자유인, 곧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한마디로 오네시모는 동업자인 예수 잘 만나서 팔자 고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본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몇 가지 간곡한 부탁을 하는 바울의 개인 서신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서신 중에서 희랍어 335글자로 된 가장 작은 책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야말로 예수님을 동업자로 삼는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변화될 수 있는지를 한 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동업자가 필요한 것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할 때 독립해서 혼자 하지 않고 동업을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부족하다든지, 경험이 없다든지, 기술이 모자랄 때 대개 동업을 하게 됩니다. 자본이 두둑하고, 그 분야에 사업 경험이 충분하고, 탁월한 전문 기술이 있는 사람은 동업자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혼자서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영적 동업자가 필요한 것은 순전히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노예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보다는 하나의 소유물로서 취급되었습니다. 더욱이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는 어떤 가혹한 형벌을 주어도 누구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희랍의 문서에는 도망친 노예들을 잡아 종종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품을 뛰쳐나온 배은망덕한 노예입니다. 노예요, 죽어야 할 죄인이요, 도망자인 오네시모를 바울의 동업자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10절에 바울은 "간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

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12절에는 오네시모가 바울의 ‘심복’이라고 했습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너무나 소중한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항상 옆에 두기를 원했지만 당시 로마법으로 볼 때 먼저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18~19절을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바울이 친히 그 돈까지 다 변상하겠다고 나섭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신뢰하고 아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들이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동업자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코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까닭입니다. 완전하고 의로운 분은 동업자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불완전한 죄인만이 예수님을 동업자 삼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동업자 삼으면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희랍어로 “유익한” 혹은 “쓸모 있는”의 뜻을 가집니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11절)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름 뜻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의 달라진 모습을 재치 있게 대조시킵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자기 이름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주인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재물을 훔쳐 도망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옥중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의 동업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백해무익했던 대역 죄인이 바울과 빌레몬은 물론, 누구에게나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맞아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교부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의 편지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2세기 초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 성경의 1/3에 해당하는 바울 서신들을 모아서 편집하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신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빌레몬서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무익하기만 했던 오네시모가 교회사에 큰 업적을 남기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동업자 예수님을 만난 까닭입니다!

셋째, 예수님과 동업하는 사람마다 만사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모두 셋입니다. 삼각관계에서 일어난 일이 이 편지의 주제입니다. 사실 바울이 오네시모의 일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세 사람 모두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로서는 감옥 안에서 온갖 정성을 다해 자신을 섬기는 오네시모와 헤어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수족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또한 빌레몬 역시 주인인 자신을 배신하고 돈까지 훔쳐 달아난 오네시모를 쉽사리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역시 자기가 배신했던 주인 빌레몬과 다시 대면한다는 일이 참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겠지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세 사람 모두가 까딱 잘못해서 오해가 생길 경우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묘한 삼각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너무나없이 예수님을 인생의 동업자로 모셨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빛을 지기 이전에 예수님께 큰 빛을 진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동업자로 모신 예수님 때문에 꼬이기 쉬운 삼각관계가 아주 부드럽게 풀린 것입니다.

본문 19절로 보건대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로 개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은 바울에게 사랑의 빛을 쬔습니다. 오네시모는 돈을 훔쳐 도망친 법적인 빛뿐만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빛까지 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옥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심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이처럼 동업자 예수님 안에서 서로서로 사랑과 용서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모두는 공통으로 동업자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의 한 분 구주이신 예수님 때문에 저들은 피차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로마법으로는 철천지원수가 될 관계입니다. 도망친 노예를 돌봐준 바울 역시 빌레몬에게 눈엣가시 같을 수 있으며,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변상을 해 주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예수님을 동업자로 모셨기에 예수님 안에서 인간적인 갈등은 해소되고 오해는 눈 녹듯 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동업자로 모신 사람마다 모든 막힌 인간관계가 주님의 은혜로 술술 풀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동업자 예수님 안에서 결국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게리 스몰리(Gary Smalley)와 잔 트렌트(John Trent)가 공동으로 쓴 「인간의 숨겨진 가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두 저자는 인간이 일생 동안 두 개의 칼을 휘두르며 산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칼은 은으로 된 칼로서 법이나 사회적 신분, 직책, 혹은 학위 등등에 기초한 힘이나 권위의 칼입니다. 두 번째 칼은 황금으로 된 칼로서 내면의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자비와 사랑, 친절, 온유 등등 덕성의 칼입니다. 은으로 된 칼과 황금의 칼 모두가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은칼만 무자비하게 휘두른다는 데 있습니다. 직장에서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까지 은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기 때문

에 가정이 깨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칼이 모두 필요합니다. 적시적소에서 은칼을 휘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칼이 필요할 때 은칼을 휘두르면 자신과 다른 사람에 상처를 입히고 인간관계마저 깨집니다. 황금칼은 사람을 화해시키며 하나로 묶어 줍니다.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는 모두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은칼을 쉽게 뽑아 휘두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칼은 칼집에 도로 꽂고, 그 대신 황금칼을 빼냈습니다. 자비와 용서, 화해, 사랑, 일치의를 칼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동업자로 모신 사람마다 은칼보다 황금칼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감리교 평신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동업자로 삼읍시다. 지금은 은칼이 아닌 황금칼을 써야 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감리교회가 혼란스럽고, 웨슬리의 후예라는 영예가 땅에 떨어진 이때에 우리가 돌아갈 유일한 대상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동업자 삼아 예수님과 함께 일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

예수님과 함께 동업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정죄와 심판의 은칼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황금칼을 쓰게 됩니다. 이리저리 막혔던 인간관계가 풀리고 윤희유를 친 것처럼 부드럽게 됩니다.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동업자요, 우리 모두의 동업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Ⅲ. 예배자료

1. 평신도 기도주간 묵상문



김형래 목사
우두교회 부담임, 감신대 외래교수

소개하는 6편의 묵상문은 평신도주일(6월 3일)을 맞이하는 주간에 함께 나누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시간이 나는 대로 성경말씀을 읽고 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평신도주일을 맞이하여 평신도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기도주간 : 5월 28일(월) ~ 6월 2일(토)

5/28

월요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말씀묵상 에스겔 37:16~23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 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기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온갖 위험과 고난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서로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 미움과 갈등 속에 미사일과 핵무기의 위협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와 지역 간에, 그리고 사제와 노사 간에도 서로 대립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사랑과 배려, 조화의 삶을 살기보다는 분열과 대립,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원수처럼 대적하고 살아야 합니까? 언제쯤이면 지연, 학연, 혈연 등 집단 이기주의를 사랑과 희생으로 극복하고 참 평화가 가득한 삶을 살아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남북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6,200여 감리교회의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새로워지고 하나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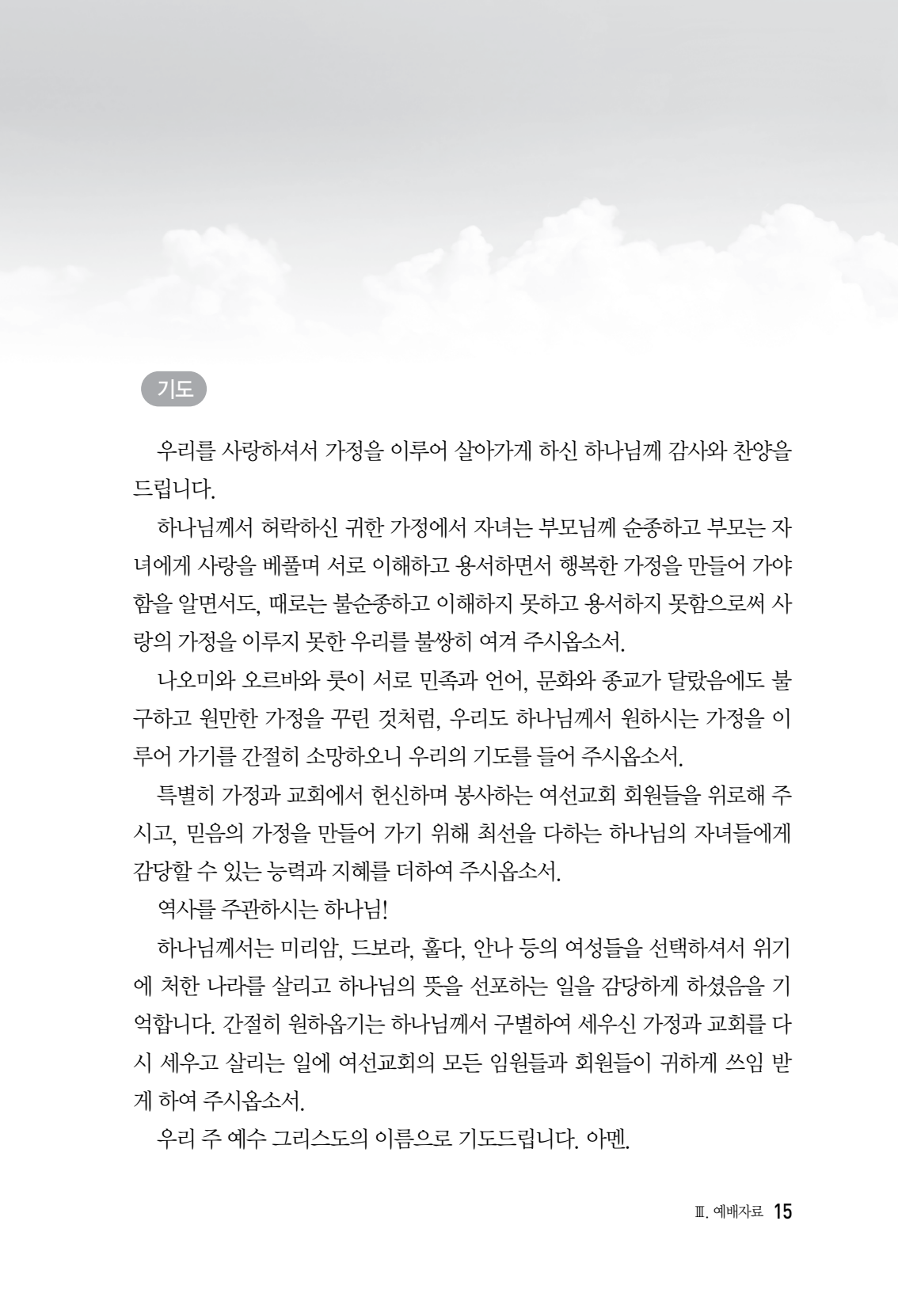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한 가정, 쓰임 받는 여선교회”

말씀묵상 룯기 1:1~4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룯이더라...



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함을 알면서도, 때로는 불순종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사랑의 가정을 이루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오미와 오르바와 룯이 서로 민족과 언어, 문화와 종교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가정을 꾸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여성교회 회원들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미리암, 드보라, 홀다, 안나 등의 여성들을 선택하셔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우고 살리는 일에 여성교회의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이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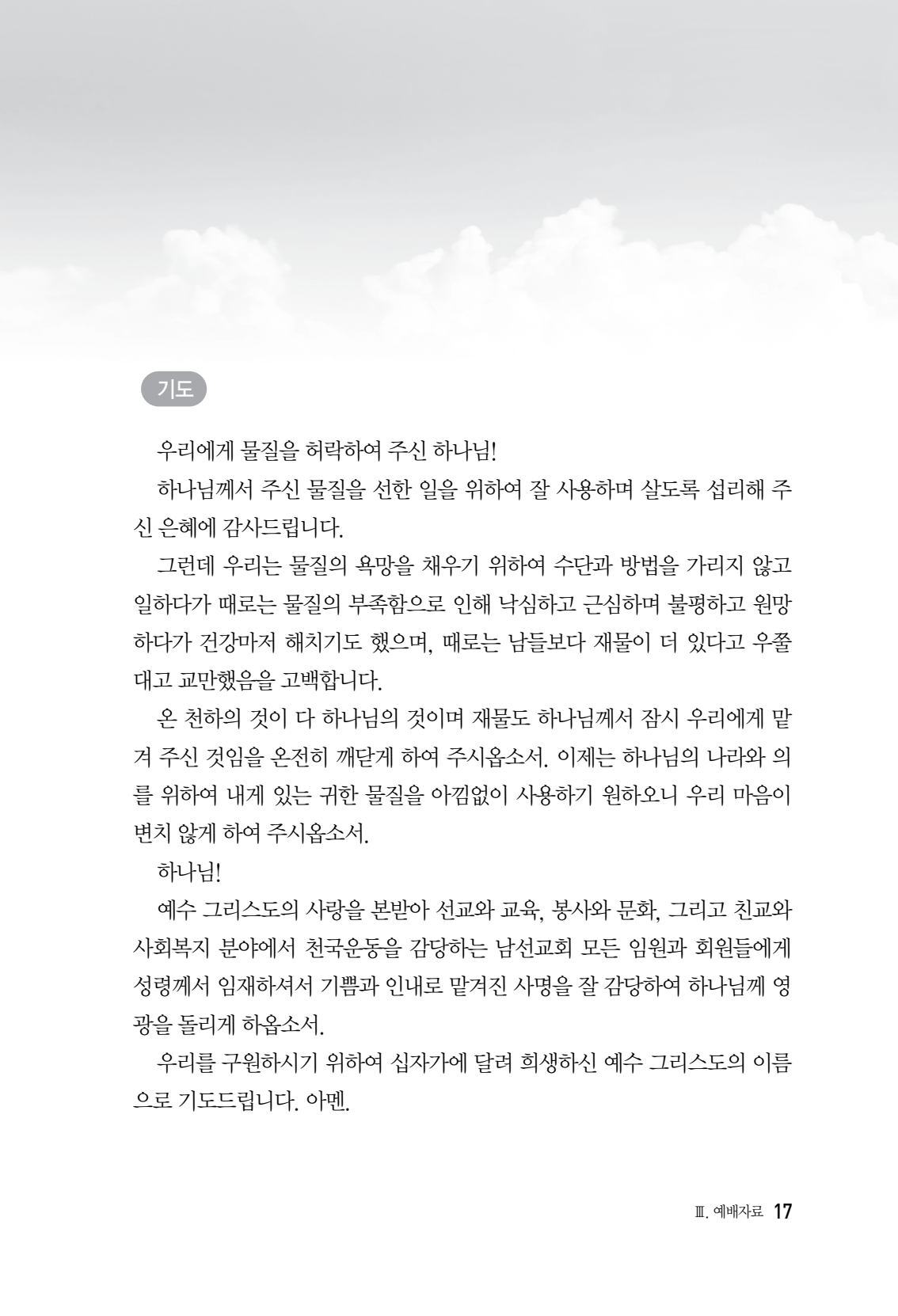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욕 극복, 사명을 감당하는 남선교회”

말씀묵상 마태복음 6:25~3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는 목숨을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기도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선한 일을 위하여 잘 사용하며 살도록 섭리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다가 때로는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 낙심하고 근심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건강마저 해치기도 했으며, 때로는 남들보다 재물이 더 있다고 우쭐대고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온 천하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재물도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게 있는 귀한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선교와 교육, 봉사와 문화, 그리고 친교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천국운동을 감당하는 남선교회 모든 임원과 회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기쁨과 인내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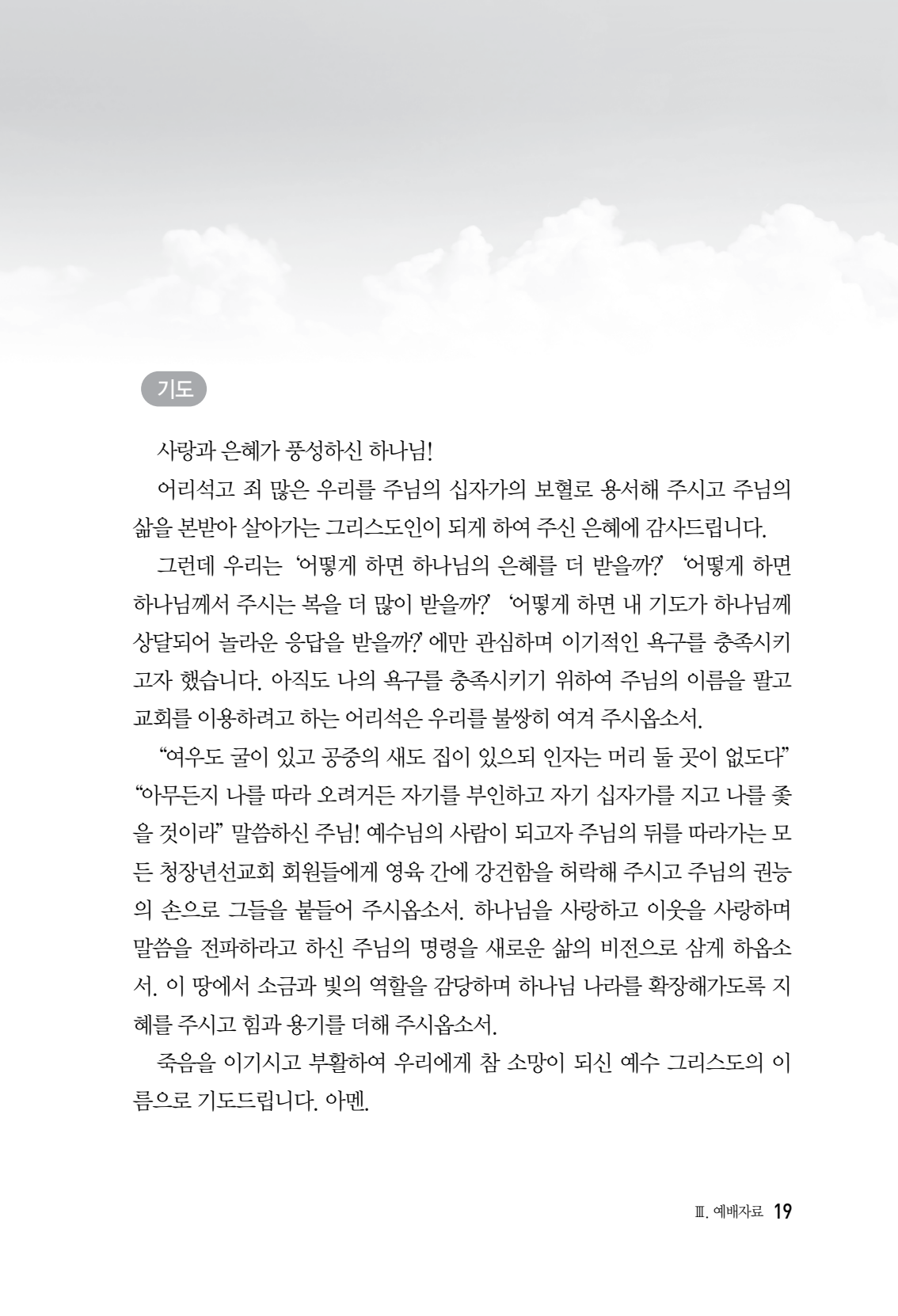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기적인 욕구충족 극복, 십자가의 길 가는 청장년선교회”

말씀묵상 누가복음 9:57~62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놀라운 응답을 받을까?’ 에만 관심하며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습니다. 아직도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팔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든 청장년선교회 회원들에게 영육 간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새로운 삶의 비전으로 삼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영적 교육과 훈련에 적극 동참”

말씀묵상 시편 1:1~6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기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간으로 친히 모태에서 조성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은 태어나서 많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적인 교육과 훈련에 열심히 참여해야 함을 알면서도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과 영적인 양육을 받는 일에 열심히 동참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에 소극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위한 복을 간구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시고 영적인 교육과 훈련에 적극 동참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본을 보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사람임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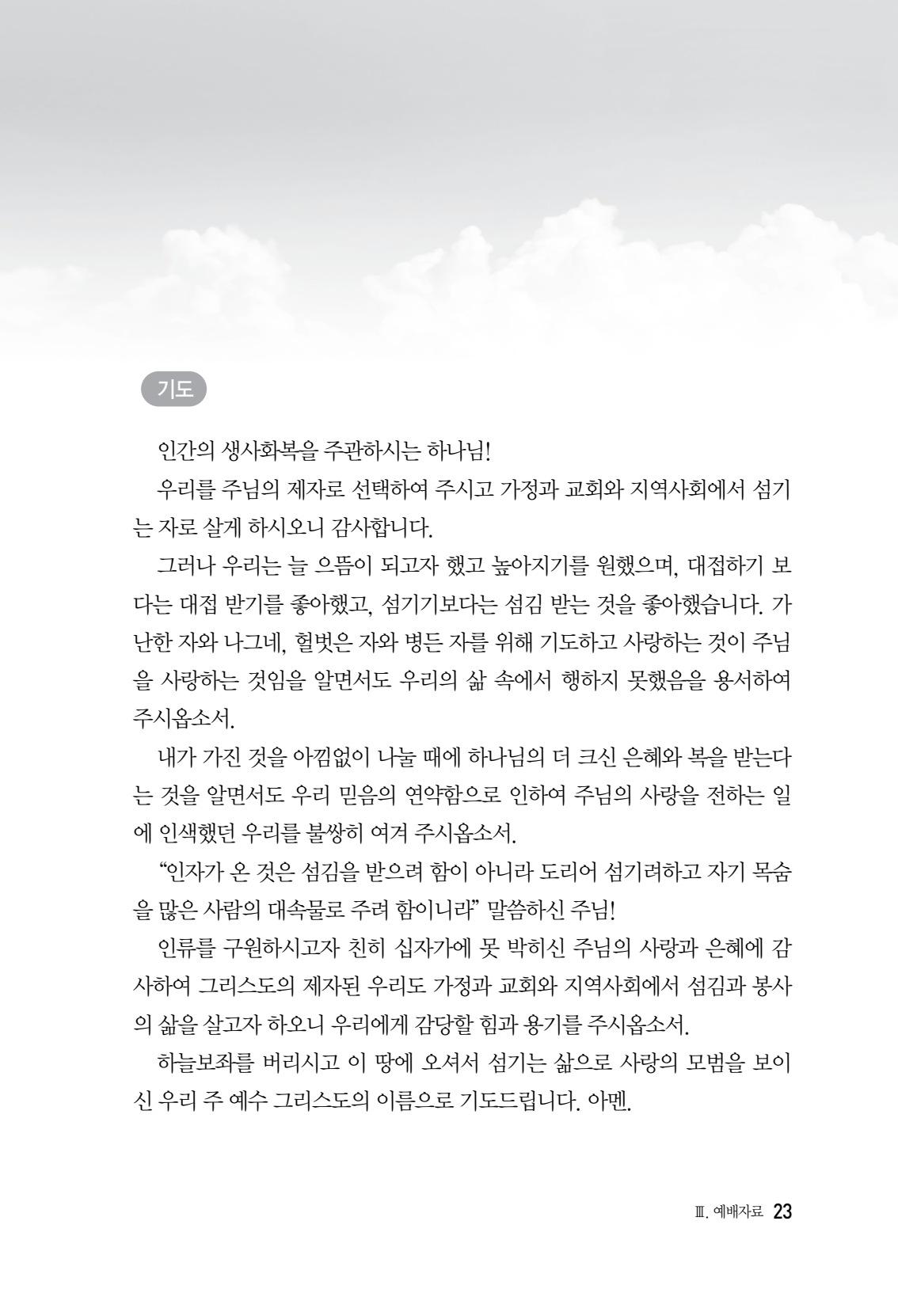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섬기는 자, 사회봉사와 복지활동 참여”

말씀묵상 마태복음 20:20~28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선택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으뜸이 되고자 했고 높아지기를 원했으며, 대접하기 보다는 대접 받기를 좋아했고,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 헐벗은 자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눌 때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인색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삶으로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예배문

평신도주일 공동예배문

집례자 : 장로 대표

하나님께로 모임

전주..... 반주자

* 입례송 35장(큰 영화로신 주) 다함께

* 예배로 부름과 기원 집례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 경배찬송 10장(전능왕 오셔서) 다함께

* 말씀교독 마태복음 5:13~16 다함께

집례자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회 중 :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집례자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회 중 :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

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례자 :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회 중 :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 삼위영가 7장(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오늘의 기도 권사 대표

지금도 이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복된 성일에
평신도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
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책망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셨으나, 우리는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못했고 진리의 길로 가지 않았으며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지 못하고 부정부패가 가득한 세상에서 소
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
가는 우리가 평신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바를 깨닫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지친 영혼이 소생하는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옵
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다함께
기도응답송 찬양대

말씀의 선포

* 말씀낭독 1) 구약의 말씀 : 시편 67:1~7 집사 대표(여)
2) 신약의 말씀 : 베드로전서 4:7~11 집사 대표(남)
3) 오늘의 말씀 : () 설교자(목사 또는 장로)

찬양 찬양대
설교 설교자

감사와 나눔

합심기도 말은 이

예배자료로 함께 제공된 주간 기도문의 요일별 주제와
개 교회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

1. 나라와 감리교회를 위하여(남선교회 회장)
2.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여선교회 회장)
3. 평신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청장년선교회 회장)

찬송..... 447장(이 세상 끝날까지)..... 다함께

* 봉헌 다함께

* 봉헌기도 말은 이

평화의 인사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함께

교회소식 집례자

세상으로의 파송

* 찬송..... 516장(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다함께

* 파송의 말씀 다함께

집례자 :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회 중 : 옳은 길을 따르며 의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아멘.

* 축도 목사

후주 반주자

(* 표시한 곳은 일어선다)

Ⅳ.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행사자료

1. 평신도주일 성수 방법

1) 평신도주간과 평신도주일 성수로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앙과 소명의식을 새롭게 인식하여 평신도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평신도 단체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우리 감리교회의 특별한 신앙실천운동입니다.

평신도주일 성수를 통하여 평신도들이 교회 행사의 실제적인 주관자가 되어 나누고 섬기는 신앙 실천을 통하여 평신도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2) 금년 평신도주일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모습인 말씀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웨슬리의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깨닫고, 교회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과 섬김의 주간으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3) 방법

가. 평신도주일 1주 전 평신도주간(5월 마지막주: 5/28-6/2)에 주일자료집에 수록한 “요일별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평신도사명에 대하여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5월 마지막 주일에 “평신도주간 기도문”을 전교인에게 배부하여 기도주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 개체 교회는 신앙의 실천이 강조되는 평신도주일 성수의 의미를 2~3

주 전부터 주보에 홍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개월 전에 사회봉사부가 주관이 되어 각 기관 임원 연석회의를 열어 개체교회에 합당한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실천항목 선정 및 기관별 담당을 정하여 격려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평신도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활력이 되는 평신도주일로 지킵시다.

다. 평신도주일·주간행사는 지방 사회평신도부 목적사업에 초점을 두되,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사회봉사 사업이나 평신도 중점 사업과 자료에 예시된 사업을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4) 평신도주일헌금

개체교회에서 평신도주일을 성수하고 드린 헌금은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가 취합하여

- ① 50%는 본부의 평신도운동 활성화 사업과 재해재난 및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내 주시고
- ② 50%는 지방 사회평신도부 목적사업, 지방 평신도 및 사회봉사 사업 기타 지방 협력 사업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평신도주일헌금

송금계좌 : 국민은행 813001-04-014211

우리은행 1005-201-023587

농 협 1277-17-001024 (예금주:기독교대한감리회)

5)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는 첨부자료의 개체 교회 평신도주일성수 결과보고서①을 취합하여 평신도주일성수 결과보고서②를 작성하고 이를 7월 30일까지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팩스(02-399-4350)나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사일지는 별도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 평신도주일 및 주간 프로그램 예시

행사주관	프로그램	방법
개 교회	평신도 기도주간 5/28(월)~6/2(토)	· 평신도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는다. · 평신도주일 1주 전 주일에 전교인에게 '주간 기도문' 을 배부한다. · 요일별 기도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한다.
	평신도주일 예배 6월 3일	· 평신도주일 자료집에 수록한 예배문으로 평신도주일 예배를 드린다 · 예배순서에 평신도들이 참여한다.
	미자립 교회 방문 (비전교회)	· 특별헌금이나 기금으로 한다.(목적사업) · 전도와 지역봉사를 함께 겸하면 더욱 좋다. · 방문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 본다.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	· 생활 속의 신앙 실천운동이 되게 한다.
지방	평신도주일 연합예배	· 연합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을 찾고, 미리 준비하고 조직해야 한다. · 반드시 감리사와 교역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얻어야 한다. ·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을 다짐하는 순서를 갖는다. · 지방 감리교 희망봉사단 발대식을 같이 한다.
	평신도주일 교환예배	· 강단교류, 외부강사 초빙, 열린 예배(연극, 워십 댄스 등) · 목적(특별) 헌금을 드린다. · 예배 순서에 평신도들이 참여한다.(사회, 기도 등)
	평신도상 수여	· 사회봉사상, 효자효부상 등 · 연합예배로 시상하는 것이 좋고, 선정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 · 개체 교회에 의뢰하여 신청을 받고, 상패와 부상을 준비한다.

3. 사회봉사 사업 예시

가. 개교회 차원

- (1) 자원봉사활동 및 결연사업(지자체 사회복지과 문의)
 - 가) 저소득 가정 및 독거노인 (반찬 나누기, 청소, 도배 등)
 - 나)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후원
(등록금, 용돈, 교재비, 교복, 도시락 등)
 - 다) 결식아동 지원 (도시락)
 - 라) 지역내 사회복지시설과 결연(후원) 및 자원봉사
 - 마) 지역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 (거리 청소, 하천 주변 정화 등)
- (2) 장기기증 서약식(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 1588-0692 조정진 목사)

(3) 헌혈 운동

- 가) 평신도주일 행사와 병행하여 헌혈운동 전개한다.
헌혈은 건강한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예수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헌혈, 생명을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나) 단체 헌혈 안내

- 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1600-3705)
- ② 한마음혈액원(☎ 02-6918-2041)

다) 헌혈증 기증

- ① 주위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환우에게 헌혈증을 기부한다.
(교회 단체)
- ② 헌혈증을 모아 본부 사회평신도국으로 보내오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감리교회 이름으로 헌혈증을 전달 후원한다.

나. 지방 차원

(1) 평신도주일 목적 사업 (사회봉사 지원사업) :

“지역 이웃과 함께하는 감리교회”

가) 목적

제34회 평신도주일 기념사업으로 전국 모든 지방에서 지방자치 단체와 사회복지협약 및 사회복지 물품 전달식을 개최하고, 감리교회망봉사단이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물품을 전달하여, 섬기고 나누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감리교회의 이미지 개선하고 영향력을 높이는 데 있다.

(2) 방법 : 지방자치단체와 물품 전달

가)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평신도주일 목적사업 개요를 설명하고 전달식 개최 가능 유무를 확인한다.

나) 전달식이 가능하다면 감리사와 협의하여 교역자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고 금번 34회 평신도주일을 사회봉사 목적사업으로 지키고 협력하기로 결의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간 사회봉사협약 체결(생략 가능)

라) 평신도주일 성수 및 홍보(현금 교회 참여 유도)

평신도주일을 성수하여 드린 현금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쓰이는 것을 지방과 교회에 홍보하고 평신도주일현금에 목적성을 부여한다.

마) 평신도 주일현금 수합

바) 지방자치단체와 지원 대상 및 물품 협의

- 상기(2)에서 목적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상기(3) 이전에 협의 가능 지자체와 협의하여 금년도 사회복지 지원 명목을 명확하게 선정한다.(예: 독거노인, 쪽방거주인, 청소년가장, 차상위계층 등)

사) 전달식 일자 및 장소 확정(시·구·군청, 감리사교회)

* 추석을 앞둔 9월 2~3주에 전달식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

아) 전달식에서 감리교 희망봉사단원들이 직접 물품을 전달한다.

(쌀 및 식료품 세트-쌀, 라면, 햄, 식용류 등)

자) 시·군·구 지자체 홍보자료 및 지역 신문에 홍보하고 알린다.

(3) 감리교 사회복지시설 결연 및 후원

(사회평신도국에 문의 ☎02-399-4347)

(4) 미자립교회 및 비전교회 후원

다. 본부 차원

(1) 사회복지 희망나누기 행사 개최(희망만들기)

제34회 평신도주일 사회봉사 목적사업을 사회평신도국이 먼저 시범적으로 행하고 이를 알려 지방에서 모델로 활용하게 한다.

① 감리회 이름으로 서울시에 사회복지물품 전달 협의(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② 서울시와 지원계층 및 지원 물품선정(지원대상과 인원 선정)

③ 물품전달 일시와 장소 협의(서울광장 또는 희망광장)

④ 물품구입

⑤ 전달식 및 물품 전달(감리교 희망봉사단원이 직접 선정 이웃에게 전달)

(2) 불우이웃돕기 및 재해재난 돕기 사업

개체교회와 지방, 연회를 경유하여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가 사회평신도국에 지원을 요청하면 절차에 따라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역자 및 평신도 등 지원)

감리교인 생활 수칙

1. 웨슬리의 신앙 규칙

가. 수산나의 가정교육을 위한 규칙

- ① 어릴 때부터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젖 먹는 시간 및 노는 시간을 정해놓고 철저히 지키게 하였다.
- ② 잘못된 의지를 일찍부터 꺾어 놓기 위해서 규칙을 어기면 반드시 체벌하였다.
- ③ 체벌을 받을 때 소리 내어 울지 못하게 하고, 울면 체벌을 더 가중시켰다.
- ④ 매를 가한 후에는 맞는 이유를 깨닫게 설명하고,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 ⑤ 자리에서 일어나면 먼저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하였다.
- ⑥ 항상 성경을 읽게 하였다. 아침에는 시편과 구약성경을 읽고, 낮에는 시편과 신약성경을 읽게 하였다.
- ⑦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다.
- ⑧ 서로 짝을 지어 큰 자녀가 어린 자녀를 돌보아 주도록 하였다.
- ⑨ 거짓말을 절대 못하게 하였고, 싸움을 하지 않도록 도덕훈련을 철저히 하게 하였다.
- ⑩ 일주일에 한번씩 자녀들과 개인적으로 만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상담을 했다.

나. 신성구락부(Holy Club)의 규칙

- 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려는 기회를 붙잡으려고 노력했는가?
- ② 이웃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 ③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일에 정성을 다 쏟았는가?
- ④ 낮은 사람을 대할 때 참 신앙을 설명해 주었는가?
- ⑤ 공중예배와 성찬식 참여하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는가?
- ⑥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가?
- ⑦ 다른 사람의 잘못을 성실하게 충고한 적이 있었는가?
- ⑧ 이웃을 향하여 진정 함께 웃으면서 기뻐해 본 일이 있었는가?
- ⑨ 선한 뜻이 사람들을 향한 행동의 원칙이 되었는가?

다. 성화의 삶을 위한 생활 규칙

- ①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치도록 하라.
- ② 맡은 일을 부지런하게 완수하라.
- ③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데 시간을 드려라.
- ④ 모든 날을 주일처럼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하라.
- ⑤ 술 잘 먹는 사람과 남의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피하라.
- ⑥ 호기심을 일으키는 일과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팔지 말라.
- ⑦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잘못은 즉시 고쳐라.
- ⑧ 하루 한 시간 이상씩 깊이 생각하는 일에다 바쳐라.
- ⑨ 행동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망한 일을 삼가라.
- ⑩ 유익 없는 이야기는 듣지 말고 좋지 못한 책은 읽지 말라.
- ⑪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남에게 실망을 끼치는 일이 없게 하라.
- ⑫ 다른 사람과 불필요한 교제는 피하고 유익한 교제를 도모하라.
- ⑬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어떤 고기도 함부로 먹지 말라.
- ⑭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즉시 버리고 좋은 생각만 가져라.
- ⑮ 모든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 ⑯ 어떤 일이나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라.
- ⑰ 어떤 경우에도 의무를 회피하지 말고 의무 이상을 행하도록 하라.
- ⑱ 언제나 목적을 잃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맞추어라.
- ⑲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어떤 여자와도 함부로 교제하지 말라.
- ⑳ 아무리 강한 유혹이더라도 그것을 단연코 즉시 물리쳐라.

라. 웨슬리의 건강 규칙

- ① 꾸준한 운동과 맑은 공기를 마신다.
- ② 밤잠을 거르지 않는다.
- ③ 언제든지 피곤하면 낮이나 밤이나 잠을 잔다.
- ④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난다.
- ⑤ 매일 5시에 설교를 한다.
- ⑥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읽는 취미를 갖는다.

마. 찬송을 부르는 규칙

- ① 악보에 있는 것을 고치거나 변경하지 말고 정확하게 불러라.
- ② 소절을 생략하지 말고 모두 불러라.
- ③ 될 수 있는 대로 혼자 부르지 말고 회중과 함께 불러라.
- ④ 졸면서 생각 없이 부르지 않도록 조심하라.
- ⑤ 힘을 다하여 목소리를 높여 불러라.
- ⑥ 남이 들을까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불러라.
- ⑦ 당신의 목소리가 다른 회중보다 튀어 나오지 않도록 겸손하게 불러라.
- ⑧ 빠르기를 잘 맞춰서 불러라.
- ⑨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러라.
- ⑩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송을 불러라.

2. 제 27차 총회 결의에 따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선언문

기독교대한감리회 150만 감리교인들은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희망을 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약속한다.

1.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경건생활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받들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3.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4.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소금처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자연과 생명체를 사랑하고 조화로운 삶을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며, 환경보호에 헌신한다.
6.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선다.
7.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 위 선언문은 연회·지방회·개교회 및 각종 단체 행사에 교인생활수칙 실천을 결의하는 선언문으로 사용하시고 세부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취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감리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바르고 신실한 믿음생활을 사회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이에 사회평신도국은 감리교인의 생활규칙을 제정하고, 그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감리교회의 생활 수칙을 만들어 공포하는 바이다.

나. 주제성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다. 목표

- 1) 웨슬리의 성화론적인 신학과 신앙의 원리를 규칙으로 삼아 지켜온 신앙 전통을 이어받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 2) 기독교인의 삶의 표준으로 사회생활 수칙을 선포하고 지키게 함으로 감리교인의 도덕적 수준을 드높인다.
- 3) 하나님의 복을 불우한 이웃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 교회를 부흥시킨다.

라. 생활 수칙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경건생활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1) 교인생활 수칙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받들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 ① 교우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나 형제와 자매처럼 친절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존경과 예우를 한다.

- ② 교회 내에서 교우 간의 호칭은 직분(집사, 권사, 장로)에 따라 부르고, 직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어 쓰도록 한다.
- ③ 교회의 모든 물품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고, 교회의 각종 시설을 깨끗이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④ 우선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을 돕고, 환난 당한 교우들을 최선을 다하여 돌보아 주되, 보증을 서는 일이나 금전거래는 피한다.
- ⑤ 예배나 각종 모임의 시간약속을 잘 지켜서 신실성을 보여 주고,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⑥ 다른 교우들의 약점을 들추거나 헐뜯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 부정적인 말 한 마디가 한 영혼을 죽이고, 본인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
- ⑦ 교회의 모든 일은 나누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힘쓰고, 주관하는 사역보다 뒤에서 협력하고 보좌하는 습관을 갖는다.
- ⑧ 성도의 사생활이나 허물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속회에서나 선교회에서 상담하고 일어난 일을 다른 교우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불확실한 말을 전하는 것이 사탄이 틈타는 통로이다.
- ⑨ 교회의 일은 교회 밖에서 거론하지 말고, 교회의 부정적인 일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 ⑩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거나 자리를 탐하지 말자.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2) 가정생활 수칙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 ① 평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의 대소사는 부부가 함께 상의하고, 가족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 ② 「하늘양식」으로 주간 마다(혹은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려 경건한 가정 이 되게 하고, 마침기도는 부모님이 함으로써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숙지시킨다.
- ③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훈을 만들어 가족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 ④ 가정의 규칙을 만들어 지키게 함으로써 공익을 우선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시민정신을 갖게 한다.(귀가시간, TV시청시간, 식사시간 등)
- ⑤ 매주 한 번씩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함으로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품위 있는 식탁 예절을 배우게 한다.
- ⑥ 모범가정상을 제정하여 해마다 시상함으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을 드높인다.
- ⑦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음악, 연극 등을 개발하여 기독교문화를 창달하는 데 힘쓴다.
- ⑧ 자녀들의 의식주 및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여 투자하되, 유산은 물려 주지 않는다.
- ⑨ 관혼상제를 간소화하여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청빈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한다.
- ⑩ 술, 담배, 도박, 마약 등 사회악을 추방하는 데 앞장서고 생활 실천 계몽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3) 일반생활 수칙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소금처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① 동회, 반상회, 부녀회, 노인회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갖고 적

극적으로 협력한다.

- ②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웃에게 소음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대화한다.
- ③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물건은 되도록 적게 쓰도록 한다.
- ④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엄격히 구분하여 행동하고, 공공건물이나 물품 및 공동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 시민정신을 함양한다.
- ⑤ 차량을 운전할 때 양보운전을 습관화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⑥ 이웃에게 바르고 정직한 삶을 보여 줌으로써 기독교인의 품위를 고양한다.
- ⑦ 직장의 동료들에게 항상 솔선수범하고, 허드렛일을 내가 도맡아 하며, 책임은 내가 지고, 칭찬은 동료에게 돌리는 리더의 자질을 키운다.
- ⑧ 마을회관, 파출소, 동사무소, 노인회관 등 지역사회의 공익기관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격려하고 봉사함으로써 애郷심을 기른다.
- ⑨ 시간을 잘 지키고 약속을 엄수함으로써 신용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 ⑩ 어른을 잘 공경하고, 어린이, 부녀자 등 약한 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도와 준다.

4)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수칙

우리는 자연과 생명체를 사랑하고 조화로운 삶을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며, 환경보호에 헌신한다.

- ① 창조질서 보전운동은 자원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아껴 쓰고, 덜 쓰고, 바로 쓰고, 다시 쓰고, 나눠 쓰자.
- ② 재활용은 자원절약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중고품을 서로 교환하여 이용한다.
- ③ 샴푸, 린스, 세제, 스프레이 등 공해물질을 덜 쓰거나 쓰지 않는다.
- ④ 오염물질이 하천에 배출되지 않도록 폐수는 반드시 정화시설을 통하여

배출하도록 한다.

- ⑤ 비닐을 적게 쓰고 특별히 농산물 포장에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⑥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분량을 줄이고, 내가 남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하고, 버려진 휴지를 줍는 습관을 기른다.
- ⑦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꽂초나 껌, 침 등을 함부로 뱉지 않는다.
- ⑧ 공원과 공공장소의 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하자. 문화생활의 척도는 공공화장실 사용에 있다.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한다.
- ⑨ 탐욕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한다.
- ⑩ 교회 및 NGO 시민단체에서 벌이는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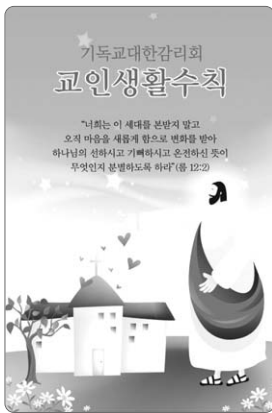
5) 정직운동 실천을 위한 수칙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선다.

- ① 날마다 정직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한다.
- ② 정직선언서를 만들어 서명하여 마음에 새기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 부착하여 날마다 보게 한다.
- ③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한다.
- ④ 약속을 꼭 지킨다.
- ⑤ 정직이 최선의 삶의 모범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 ⑥ 공공질서를 잘 지킨다.
- ⑦ 부정한 뇌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 ⑧ 검약생활에 본보기가 된다.
- ⑨ 국가에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교회 통계표를 정직하게 보고한다.

⑩ 지방이나 연회의 각 선교회 단체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정직 캠페인을 벌여 감리교인 전체가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감리회본부 홈페이지(www.kmc.or.kr)
사회평신도국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Ⅵ. 첨부자료

1. 현수막 견본

2012년도 주제 :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며 성장하는 평신도

제 34회

경 평 신 도 주 일 축

기간 : 2012. 5. 28 ~ 6. 3

주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주최 : ○○연회 ○○지방 ○○교회

2. 헌금봉투 견본

제 3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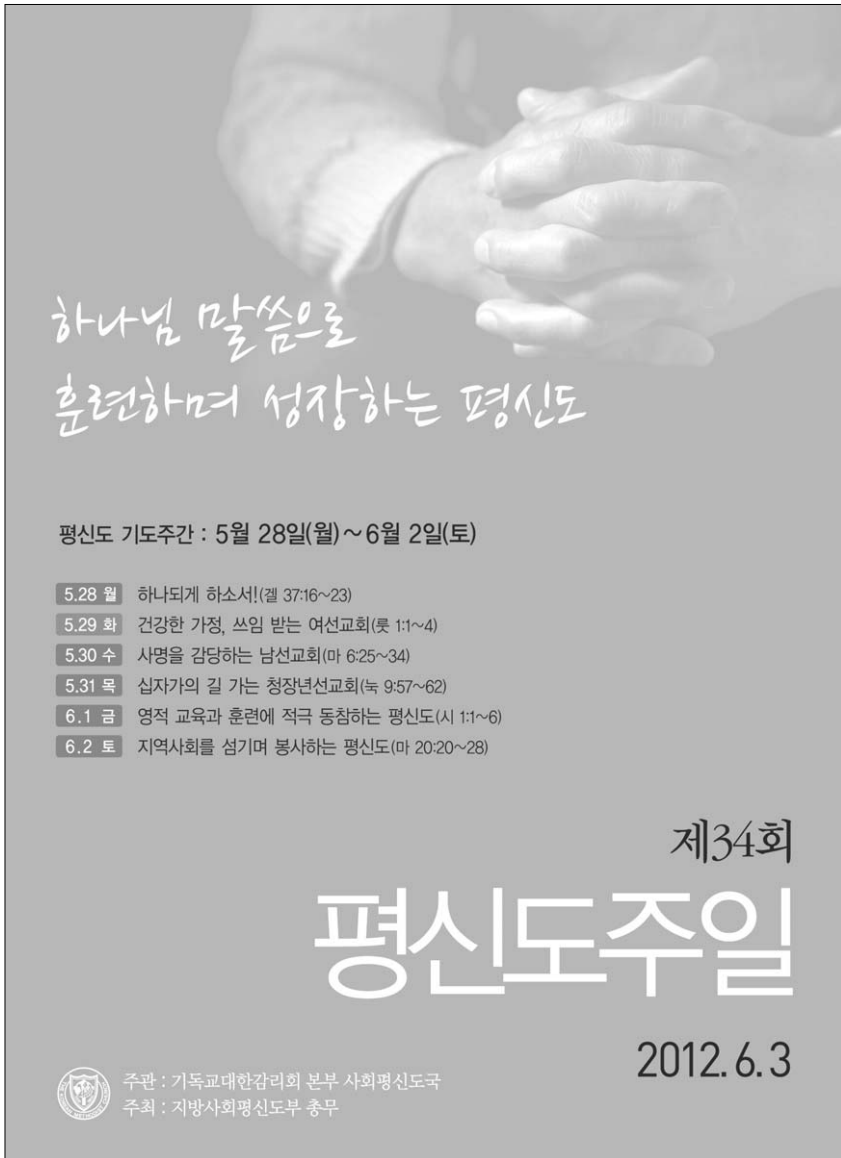
평신도주일 헌금

2012년 6월 3일

■ 재해기금 사업 후원을 위하여
■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하여
■ 지방사회평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	교회
봉헌액		
이 름		

3. 포스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며 성장하는 평신도

평신도 기도주간 : 5월 28일(월)~6월 2일(토)

5.28 월 하나되게 하소서!(겔 37:16~23)
5.29 화 건강한 가정, 쓰임 받는 여성교회(룻 1:1~4)
5.30 수 사명을 감당하는 남성교회(마 6:25~34)
5.31 목 십자가의 길 가는 청장년선교회(눅 9:57~62)
6.1 금 영적 교육과 훈련에 적극 동참하는 평신도(시 1:1~6)
6.2 토 지역사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평신도(마 20:20~28)

제34회
평신도주일
2012. 6. 3

 주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주최 : 지방사회평신도부 총무

4.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서 ①

수 신: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제 목: 제34회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서

1. 교회 주간 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특기사항

2. 헌금 영수기

총헌금액	지방사회평신도부 사업비	본부 재해기금 후원금
원	원	원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12년 월 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지방
 교회 담임목사 (인)
 사회봉사부장 (인)

5.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서 ②

수 신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제 목 : 2012년 제34회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서

1. 성수교회 현황

교회명	헌금봉헌액	비고	교회명	헌금봉헌액	비고
			합계		

2. 지방 및 개체교회 평신도주일 주요 행사

♥ 평신도주일헌금 송금계좌 국민은행 813001-04-014211 (예금주:기독교대한감리회)
 우리은행 1005-201-023587
 농 협 1277-17-001024

_____연회 _____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_____(인)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집

발행인 |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발행일 | 2012년 4월 30일

발행처 |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110-73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 02-399-4346~8 Fax. 399-4350

* 비매품